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충현

발행인: 신성중
편집인: 윤명식
편집국장: 손경수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FAX: 563-3932
사서함: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오늘은 어린이주일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으로 꿈과 희망 심어주고
교회학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선물 주며 축하

오늘은 전국 교회가 어린이주일로 지킨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말씀하시되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눅18:16) 고 하셨다.

매년 5월 초가 되면 가정을 생각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잊을 수가 없다.

성경 예배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교훈이 있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혹하게 꾸중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관여함으로 인해 노엽게 해서 안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가르침으로 어린이들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어린이' 하나를 실족케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예수님의 경고성 교훈은 오늘 어린이주일 하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1년 열두달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꿈, 그리고 미래의 천국일꾼으로 키워야 한다는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또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에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이임을 강조하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이들과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못박기도 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 제1교육위원회 산하 각 부서에서는 어린이 사랑에 대한 특별 메시지가 있고, 교회가 마련한 선물도 나누어준다. 어린이주일을 만드신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본받아 그 말씀대로 착하고 바르게 키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의 쌀 운동에 동참하자
5월 10일에 헌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설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랑의 쌀 나누기 제3차년도 운동에 우리 교회도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이 운동은 급년에도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일부 지역 및 아시아, 아프리카 몇 나라를 비롯하여 국내 불우 이웃, 특히 국민 장애인들에게 사랑의 쌀을 나누어주기 위한 것으로, 천만 석도 한 되 운동, 백만 제직 한 말 운동, 5만 교회 한 섬 운동으로 전개된다.

우리 교회는 오는 주일인 5월 10일에 교회적으로 사랑의 쌀을 모으기로 하였는데, 충현의 모든 교인들은 쌀 한 되(쌀 한 되 가격은 약 천백원) 이상씩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충현프리즘

◎...청지기훈련이 예정 스케줄에 따라 끝나가고 있다.

이미 본 난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강제성이 아닌 자원하는 심정으로 이 훈련에 참여를 유도한 결과, 많은 직분자와 성도들이 이에 호응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교육과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강의 내용도 좋고, 진행 순서도 많이 개선되어 별로 불편한 점 없이

은혜롭게 진행되었고, 교육과 훈련을 받은 봉사자들(교관)도 몸이 뻐 질서 의식과 행동으로 별 무리없이 잘 따르고 열심으로 참여한다는 보고도 있다. 워크북에 기재된 시간표에 따라 강의 시작 5분 전에 입장하는 일, 홍보 안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시간 맞춰 각종 행사에 순순히 배석해 주는 일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생활 행동 양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화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라는 것이

다.

아무튼 청지기훈련이 개인의 신앙 성장은 물론, 교회 부흥과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본당들 오른쪽에 설치된 분수대의 물이 뚝뚝 시작하였다.

화창한 봄날 주일 아침, 눈이 무서게 빠지는 태양빛 아래 펼쳐지는 분수대의 물줄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생동감과 생계를 엿보게 하는 장관이기도 하다.

예배 이후의 휴식 공간으로 마련된 이 분수대 앞에는 일주일 간 만나지 못했던 믿음의 식구들의 만남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국내외 성도들의 호기심이 어우러진 환목의 수채화 같아서 충현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도 있다.

시원한 물줄기의 솟아오름처럼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보자.

카메라 쏠림



▲ 지난 4월 22일 구역장대회가 개강하였다.



▲ 수도권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4월 26일 우리 교회에서 있었다.

"충현금요찬양" 8일부터
찬양과 기도 통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중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금요 특별 집회가 오는 5월 8일부터는 찬양 중심으로 바뀌어 진행된다.

"충현금요찬양"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찬양 집회는 청장년 성도들을 대상으로 능동적 찬양 자세를 주입하고 회중 찬송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와 바울과 실라의 기적을 체험케 함으로써, 신앙 생활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영혼의 성장과 교회 배가운동에 기여하며 청장년 찬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집회의 은혜로운 진행을 위하여 배가운동본부 청장년분과는 복음성가 가수인 김민식 집사를 인도자로 세우고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한 시간 동안 찬양의 시간을 갖고, 그후 간증과 기도, 당회장 신성중 목사의 성경 강해로 진행한다.

배가운동본부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이 "충현금요찬양"의 시간에 적극 참석하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랑의 실천 운동본부
지원키로

우리 교회는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과 함께 사랑의 실천 운동 본부가 전개하는 사업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사랑의 실천 운동은 한국교회 지도자협의회(교문 김창인 목사, 회장 유호준 목사)가 주최하고 국

민일보사가 후원하는 전국 교회 차원의 운동인데, 주로 헌혈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는 전교인 헌혈 운동을 6월경에 전개할 예정으로 있다.



충현강단

신성중 목사

애굽에서의 도피와 나사렛에 거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마2:13~23)

마태복음 2장 13절과 14절에는 요셉이 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학자와 심리학자들은 꿈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꿈이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잠재 의식으로 남아 있다가 잠든 사이에 의식 속으로 나타나는 잠재 의식의 발로라고 합니다. 이런 심리학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성경학자들은 꿈이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계시나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결되기 이전에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는데, 그 중의 하나가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이나 야곱의 꿈이나 마리아의 꿈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결된 뒤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즉, 계시로서의 꿈은 더 이상 있을 수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마2:15)

마태가 여기서 강조한 점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피난 간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 기록된 예언을 인용한 것으로,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고, 전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말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 예수님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일에도 마귀의 방해가 항상 따르는 것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마 2:16)

이 말씀에서 헤롯의 잔인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아들들을 죽였고,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마22)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자기 정권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한 살이었으므로 한 살 이하의 사내 아이만 죽였으면 되었을 텐데, 헤롯은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생각으로 두 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혹시나” 하는 생각이 엄청난 비극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런 비극 역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성취 혹은 원형적 성취인 것입니다.

3 나사렛에서의 거주

“헤롯이 죽은 후에 추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마2:19-20)

헤롯이 죽자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요셉은 아기 예수님과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셀라요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됨을 듣고 거기서 가기를 무서워하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나사렛이란 동리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마2:22, 23)

헤롯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아셀라오는 유대임금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악한 왕이어서 유대인들이 쫓은 태도를 일으켜 주후 6년에 로마당국으로부터 파면당했습니다. 아셀라오의 잔악상을 이미 알고 있던 요셉은 거기서 가기를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란 동리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선 순위의 정립과 주님 중심의 생활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꿈을 이용해서 교훈하십니다.

1. 요셉의 신앙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마2:14)

만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이 일어나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였을 때,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마귀에는 음란 마귀, 질병을 가져다주는 마귀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마귀는 “차차 마귀”입니다. 그래서 배가운동을 위해 전도를 하려는데 ‘차차 하지’, 기도하려는데 ‘차차 하지’, 성경 연구하는데 ‘차차 하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지시한 대로 즉각 순종했던 것입니다.

둘째,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모친과 아기로 하여 어머니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기를 중심으로 생각하였고, 그 다음에 그의 모친을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우선 순위를 아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우선 순위를 바로 정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예언의 성취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있어서 하나의 피난처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는 성경을 보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피난갔으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이 들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갔고 430년 동안 그곳에 머무름 만큼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우상 숭배 중 90퍼센트가 애굽에서 행해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애굽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애굽으로 피난가서 잠깐 피하여 있다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헤롯의 손이 닿지 않는 애굽으로 피난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돈이 있어서 여행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에 관해서는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 성경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에게 가지고 온 세 가지 예물을 팔아서 여행비용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개냥한 목수였기 때문에 모아 놓은 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동방박사들의 예물로 피난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전월에 의하면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예수님의 가정애 강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강도들은 예수님의 가족을 죽이려고 했는데, 강도 중 디마스라는 사람에 재물은 빼앗겼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살려주었고 해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강도를 통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것은 겸손의 주님을 상징

자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마 2:17, 18)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죽게 되고, 그래서 조상 라헬이 무덤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과 그런 비참함을 보고 애통해 할 것임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제 주전 586년에 일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게 위해 베들레헴과 그 지경의 사내 아이 모두를 잡아 죽이는 사건을 예언한 것이며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 예언은 이차적으로 성취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선약생장을 읽어보면 구약성경의 말씀에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인용될 때 그것은 적어도 두 번 생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는 일차적 성취 혹은 모형적 성취이며, 신약시대에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는 이차적

나사렛은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는 어방인들과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같은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어방인들이나 무식한 사람들에 많이 거주하는 작은 동네 나사렛과 같은 곳에서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며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려고 기회를 노린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착고 천한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의 겸손과 주의 사자의 지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우선 순위를 바로 깨달아 예수님 중심으로 생활한 요셉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총헌논단●

성경에 나타난 모범 가정

- 이삭의 가정 -

최인근 목사(교구위원회·새가정부 지도)



결혼은 하나님에 의해 주관되고 이루어진다.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또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 축복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이다. 인간은 여기에서 출발을 하며 교육을 받으며 신앙이 성장하며 인간 관계를 배우게 된다. 가정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금자리이다. 성경에 나타난 모범적이었던 이삭의 가정을 살펴보면 그들이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해왔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성경에 나타난 가정들 중에 우리가 보기에 완전했던 가정은 하나도 없고, 모든 가정이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과 크게 다를 바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와같이 평범한 가정이다. 그러나 그들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삶의 현장에서 닦이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준다. 이삭의 가정은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당면한 문제들과 그들의 생활 방식 및 그들의 사상 등은 오늘날 우리가 참고하기에 충분하리만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가정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문제는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겠지 하는 생각인데 이런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가족의 행복은 가정 구성원들의 역할에 있다.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 하는 데 가정의 행복이 있는 것이다. 그 비결을 이삭의 가정에서 한번 발견해보자.

1. 가정 형성의 중요성

한 믿음 안에서 가정이 형성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삭은 40세가 되도록 결혼하

지 않았다(창25:20).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몰라도 그가 살고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다. 그가 살던 땅은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의 결혼을 이삭은 원치 않은 것이었다. 그릇된 짝과 결혼하느니 차라리 독신으로 지낸 것이

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종에게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은 같은 종족, 같은 종교, 같은 혈육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고를 것을 지시했다. 왜냐하면 적절한 조화가 성공적 결혼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즉 어떤 가정을 이루느냐에 따라 삶의 형편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이해한 것이다.

오늘날도 가정은 같은 종교, 같은 믿을 안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한다. 가정 예배가 있고 말씀 교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믿음의 가정이 형성될 때 모범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2. 남편의 바른 역할

이삭은 때로는 현명하지 못한 점도 있었으나 남편으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선량한 사람이었다. 간혹 이삭이 가정 구성원에게 무심한 면을 찾아볼 수는 있었으나 그는 가정의 식구들을 책임있게 보호하였다.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자신의 직업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

이삭은 목자로서, 농업 종사자

로서 성공을 거두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다.

남편은 가정의 신앙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남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이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창26:12) 라고 말씀한다.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받기 위해 남편은 가정의 신앙의 리더가 되어야 하며 신앙 교육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

가정 구성원에 대해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한다. 남편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한다. 남편의 바른 역할에 따라 가정의 모습이 달라진다.

3. 아내의 바른 역할

여러가지 점에서 리브가는 훌륭한 아내였다. "덕행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잠31:29),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잠31:10) 는 말씀은 리브가에게 맞는 말씀일 것 같다.

리브가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남편인 이삭 만큼이나 잘했다. 아내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바른 역할을 하는 것은 가정을 건강하게 꾸려나가는 원동력이 된다.

어머니로서의 리브가는 교육적인면에 있어서 아들을 편애하였다. 그것은 그의 실수였다. 예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두 아들이 서로 미움으로 헤어지게 만든 것이다. 어머니는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사랑을 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형제 우애의 방법

과 사랑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편애는 결국 가정의 문제를 야기시키며 자녀의 인격 발달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결국 그로 인해 가정에서의 화목이 깨어지게 된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포근하고 동일한 사랑을 주어야 한다.

주부로서의 리브가는 요리사이자 비상한 것 같다. 성경에서 즐겨 만드는 요리 가운데 하나가 소개 되어 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아내로서의 바른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사랑으로 만든 음식 속에서 가족의 건강이 지켜지며 아울러 건전한 인격이 형성된다. 또 염소 가죽을 기워 야곱의 손과 팔과 목에 맞도록 입혀 예서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이삭을 속인 것을 볼 때 리브가는 훌륭한 재봉사였을 것이다.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은 남편의 역할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다. 아내의 봉사와 노력이 곧 가정의 건강과 사랑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4. 자녀들의 바른 역할

이삭에게 있어서 쌍둥이 아들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성격으로 성장하였다. 예서는 남자다운 기질의 사람으로, 들에서 사냥을 하며 지냈고, 야곱은 여성의 기질을 가지고 조용히 집에서 지내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부모에게 근심되는 일들도 있었으나 결코 부모에게 반항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서는 어머니 리브가가 동생을 특별하게 사랑하여 동

생에게 자신이 받은 축복을 가로채게 했음에도 동생을 미워했지, 어머니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자녀로서 부모에게 공경심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불이익에도 부모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정의 행복은 가정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5. 이웃과의 관계

유목민으로서 네겟의 광야에서 살 때에 이삭의 가정에게 별다른 이웃은 없었다. 주민들이 많아 그랄에서 살아가야 할 때에 이웃과의 마찰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있는 동안 그는 우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주민과 자주 충돌이 일어났다. 이삭이 새로운 우물을 파면 우리 것이라고 그 우물을 빼앗으려 했다(창26:20). 그렇게 하면 이삭은 다른 우물을 파다. 그렇게 하기가 한두번이 아니다. 하는 수없이 이삭이 브엘세바로 이사를 가버렸다. 결국 그는 이웃과 다투지 않았다. 자신이 손해보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는 양보하였다.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원했고, 이웃이 불의하다고 자신마저 불의하지는 않았다. 결국 아비멜렉이 브엘세바로 와서 평화협정을 요구해왔다. 아비멜렉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창26:28) 고 고백하였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가정은 우리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이웃에게 복을을 심어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다.

모범적인 가정은 가정 구성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숙도가 같으냐에 있다. 또한 가정 구성원이 얼마나 자기 역할을 잘 이해하고 감당하느냐에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고 사느냐에 있는 것이다.

장로칼럼

5월과 어린이



정광호 장로
(영아부장)

높은 산을 바라보면 울창한 나무숲이 보이고 웅장한 바위도 보인다. 등산을 하다보면 바위뿐 아니라 덩어리 돌과 큰 돌, 작은 돌 또는 조각돌이 수없이 흩어져 있다. 잘 생긴 돌이 있는가 하면 아무렇게나 울퉁불퉁한 돌이 있고 어떤 자연의 모양이나 짐승의 모양을 닮은 돌도 있다. 이런 돌도 사람의 손으로 잘 다듬으면 수석이 나 보석과 같은 진귀한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들은 진귀하게 지음을 받아 찬란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사 만물을 지배하며 살게 하셨다.

5월은 어린이의 날이 있는 어린이의 달이다. 만물이 소생하며 온 지면이 푸른 옷으로 갈아 입고 결실을 준비하기 위하여 꽃을 피우는 희망의 계절이다.

5월과 같은 어린이는 여러가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다. 외동딸, 외동아들로 한 집에서 공주와 왕자의 자리를 누리고 있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결혼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도 있고, 학대받고 버림받은 어린이도 있다. 아무튼 이들은 많이 돌보아주거나 소홀히 취급을 받더라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성장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장 과정을 중요시 하고 바른 길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꿈나무로 자라나도록 이들을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도 영아부에 어머니와 같이 새로 나오는 아기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하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무릎에서 떨어질 줄을 모르고 울음을 부린다. 잠깐 떼어 놓으려고 하면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도 있다.

요사이 신혼 가정에서 한 자녀 질기우기 풍조로 인하여 형제 없이 자라나는 어린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또래끼리 의견을 나누는 일도 없다. 그러므로 협력하는 일이나 나누는 일 등을 체험적으로 교훈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 더욱이 풍요로운 성장으로 부족을 모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어린이가 교회학교 교육을 어머니와같이 받고 몇 주일만 지나면 선생님과같이 앉아 찬송과 율동을 따라 하고 어머니의 무릎에서도 떨어지고 새로 만난 친구들과도 어울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땀뻘뻘하고 당글고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아기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는 부모나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닮아가기 때문에 영아부에서는 어린이 교육과 학부모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곧고 깨끗한 아기들의 마음 속에 미움과 고집과 죄악이 자리 잡기 전에 교회 교육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어주어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인격자로 키워야 하겠다.

다음호 칼럼은 김재균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배가운동에 적극 참여하자

함께 나와 여호와를 찬양하자

송태근 목사
(배가운동본부 청장년부와 지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어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시34:1)

오는 5월 8일(금)부터 시작되는 "충현 금요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찬양의 올바른 지위와 능력을 회복하고 확립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있어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표현 방법으로 찬양을 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리고 타락 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게 되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재창조 된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성으로 심정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원하는 만큼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간격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할



◀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는 통로가 된다.

수 있을 때 문제의 해결도 쉬우리라고 본다.

감옥에 갇힌 사건의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치안을 방해한 죄로 매를 맞고 빌립보에 있는 깊은 감옥에서 차디찬 밤을 맞

"찬양은 기도를
놓고,
기도는 찬양을
놓고,
찬양과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사도행전 16장
에는 바울과 실라
가 전도를 하다가

다. 절망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통해서 세 가지의 기적을 보게 된다.
첫번째 기적은 한 밤 중에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며 죄수들의 시슬이 풀어진 것이다.
두번째 기적은 간수가 회개한 것이다.
세번째 기적은 기도와 찬송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다.

찬양은 기도를 놓고, 기도는 찬양을 놓고, 찬양과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이것은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찬양은 바로 하나님께서 좌정하실 보좌를 펴는 일이다.

군대의 사기와 실력을 측정하려면 구령 소리와 군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충현 금요찬양"을 통하여 홀리넘치는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 가야 한다.

준비된 은혜의 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실 은혜를 기도 가운데 기대하자. 성도들의 매인 사슬이 풀리고 묵은 옥터가 움직여 갈라 없어지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 13:15)

93년 미주성가합창제 참가기로

93년이면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는 세계를 향하여 모든 면에서 공헌하고 세계 교회와의 교류 및 우리 교회 찬양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내년 6월에 미국 카네기홀에서 있을 미주 기독교 방송 성가합창제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이 성가 합창제는 미주 기독교

방송국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계 선교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연주곡은 두 곡의 자유곡과 지정곡 '할렐루야'이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찬양대원 180명을 선발하여 참가단원을 구성하고 연습 일정을 세워 연습에 임하기로 하였다.

제4교구 노방전도 실시 배가운동 일환으로



제4교구(교구장 최상규 장로, 지도 김창수 목사)는 교회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배가운동에 발맞추어 지난 4월 24일(금) 노방전도를 실시하였다.

먼저 오전 10시 30분에 배다니홀에서 1부로 합동 구역 예배를 드리고, 2부로 배가운동의 중요성과 노방 전도에 대한 전도 방법을 교육하며 기도회를 가졌다. 그 후 제4교구 식구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교회 근처에서 행인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복음을 전하였다.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우리 교회에서 개최

92년도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오는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개최된다.

총회(총회장 이봉학 목사)가 주관하여 매년 봄에 개최되는 이 기도회는 3천여명의 전국 목사와 장로가 한 자리에 모여 나라와 교회와 교단을 위하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교류하는 대성회이다.

대학부 5월 작은 수양회 개최

대학부(부장 이훈 장로, 지도 이병각 목사)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충현기도원에서 "말씀과 기도로 대학부에 봄이 오게 하자"는 모토를 내걸고 "5월 작은 수양회"를 개최한다.

이 수양회는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배가운동을 위한 영적 재무장의 필요에 따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수도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 우리 교회에서

지난 4월 26일 남전도회 연합회의 헌신 예배에 이어 수도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헌신예배를 드린다. 오는 6월 15일(월)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 갈릴리홀에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설교로 진행된다.

청년1부 특강 가져

청년1부(부장 박승준 장로, 지도 김찬곤 목사)는 지난 4월 26일 오전 11시 교육관 514호에서 김정우 목사를 모시고 특강을 개최하였다.

교 회 인 사

· 신성종 당회장 목사 재단법인 충현동산 임원으로 개선
· 강순용 장로 재단법인 충현동산 임원으로 개선
· 한용관 목사 고등부 부지도로 임명

· 윤영탁 목사 영어예배 및 영어교육부 지도로 임명
· 구리하라 가즈요시 선교사 사역 종결
· 한영숙 권사 만도린연주단대장 임명

금 주의 기도 제목

1.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2.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 장로님께 영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 교인배가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소서.
(태신자갯기, 34교구 배가, 구역장 교육, 청지기훈련, 충현금요찬양을 위하여)
4.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에 모두 동참하게 하소서.
(5월 8일에 실시-쌀 한 되 이상)
5. 충현봉사관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제6교구 춘계 야외 예배

· 일시 : 1992년 5월 5일 (화)
· 장소 : 낙성대(전철 2호선 낙성대역 하차)
주님의 가족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주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기 위하여 춘계 야외예배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구의 모든 식구들은 어린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여하여 주의 사랑으로 한 데 뭉쳐 교구 부흥과 배가 전도 운동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6교구장 강순용 장로

제15교구 춘계 야외 예배

· 일시 : 1992년 5월 5일(화)
· 장소 : 양재시민의 숲(테니스장 옆)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힘써야 할 영원한 표어입니다. 데려오기 위해서는 나가야 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응집된 힘이 필요합니다. 15교구는 나가기 위한 응집된 힘을 위해서 이번에 춘계 야외예배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교구 식구들은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모임에 참여하여 단합된 힘을 보이고 전도 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회를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15교구장 박관영 장로